**빛의 자녀들 BOB JONES AND KEITH DAVIS**

****

**† 빛의 자녀들 BOB JONES AND KEITH DAVIS**

지난 속죄일부터 주님은 "하나님의 눈"과 "사람의 눈"에 관한 계시를

풀어놓으셨는데,

그 이후로 준비 시기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영안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 계시를 계속 주셨다.

그 계시를 통해서 성령님은 우리의 영안에 영향력을 미치고,

이 시대에 풀려질 왕국의 목적에 대한 계시와

주님을 온전한 눈으로 바라보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왜곡과 장애물들을

주님이 드러내고 고치시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셨다.

아래의 예언적 가르침들은 그 계시들로부터 온 것이다.

**나다니엘의 영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이를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요한 1:45-51)

성경은 나다나엘을 매우 고상한 인격을 가진 성실한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다.

"간사"함이 없다고 묘사한 표현은

속임수나 부정행위(사기), 위선이 없는 사람을 나타낸다.

이런 표현은 성실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경건한 두려움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표현할 때 사용한다.

이런 표현은 그 세대를 위해 필요한 빛의 자녀로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찬사로 여겨진다.

나다나엘은 성경을 배웠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 사람이었다.

그는 하나님을 추구하며 진리를 사모했던 사람이었다.

그를 평가한 주님의 말씀을 보더라도 그것은 확실하다.

그의 내면에는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를 보고 싶어하는 열망으로 가득차 있었다.

주님은 빌립이 그에게 다가가기 전에 무화과 나무아래 앉아있는 그를 보았다고

말함으로 그의 관심을 사로잡으셨다.

주님은 그가 잉태하기 전에 그를 알고 계셨다.

메시야임을 나타내는 이런 이적 하나가 나다나엘속에 있는 생명에 불을 지폈다.

즉 창세전에 그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에 생기를 부어 넣었다.

나다나엘은 그에게 나타난 이적을 알아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불타게 되었다.

정직한 마음을 가진 나다나엘은 영안으로 쉽게 세상에 오신 빛을 알아볼 수 있었다.

나다나엘은 성경대로 살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 양심은 청결하였고 그 눈은 그 앞에 펼쳐지고 있는 빛의 계시들에 열려 있었다.

이것은 우리 또한 반드시 배워야 할 모범이다.

히브리서 4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양날선 어떤 검보다 더 날카로와

마음의 생각과 뜻을 분별할 수 있다고 말한다.

나다나엘에게 임한 이러한 이적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백성가운데 거하시는

약속된 선지자임을 계시해 주는 메시아적인 이적이었다.

주님의 눈을 피해 숨을 수 있는 피조물은 없으며,

우리와 동역하시는 주님의 눈에 만물이 드러나며 벌거벗게 된다.

그는 우리의 대 제사장이시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다.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엡 1:18-20)

마음의 눈은 말씀의 계시를 온전히 깨닫기 위해서 밝아져야만 한다.

밝아진다는 것은 "빛을 받은 혹은 훌륭하게 계몽된"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영적 계시를 이해하고 밝히 깨닫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문자적으로 "빛으로 충만한" 것을 의미한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타나셨으며

나다나엘은 정직한 마음과 청결한 영안으로 그것을 알아보았다.

즉, 그의 마음의 눈은 진리에 대해 밝혀져 있었다.

우리가 이 시대에 현시된 말씀을 온전히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 눈에서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해야만 한다.

**오르내리는 천사들**

요한은 인자 위에 오르내리는 천사의 아름다운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모습은 주님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

즉 주님과 한 영이 되어

성령을 통하여, 주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지상에서 행하신 그 일들을 하는

신자들에게도 적용된다. (요한14:12)

성경에 약속된 완전한 기능을 가진 기름부음받은 그리스도의 몸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은 이 광경을 보고

"하나님의 집", "천국의 문"이라고 하였다.

바로 이 열린 하늘(천국)로부터

성령님이 인자 위에 내려와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부으시고

아버지의 일을 하도록 하신다.

나다나엘과 그 제자들에게 예비된 그 위대하고 놀라운 약속이 무엇인가!

그것은 주님이 지상 사역을 통해 보여주신 수많은 초자연적인 이적들을

목격하고 증거할 수 있는 특권이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러한 약속들은 간교한 것이 없는 자들의 것이다.

그들은 데살로니가전서 5:23절 말씀을 따라

영과 혼과 육을 성령의 완전한 정화 작업에 내어 놓은 자들이었다.

살전0523. 그러면 평강의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전면적으로(전부)

성화(따로 떼어 성별함)시키시느니라,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너희 영(靈, 프뉴마)과 혼(魂, 프쉬케)과 몸(소마) 그 전부가 탓할 데 없이

보존되기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느니라.

**우리의 등불**

눅1133. 사람이 촛불을 켜서, 아무도 그것을 비밀의 곳에도, 부셸(말) 아래에도 놓지

않고, 대신에 촛대 위에 놓느니라, 그래서 들어오는 그들이 빛을 볼 것이니라.

눅1134. 몸의 빛은 눈이니라, 그러므로 네 눈이 정직하면(성실하면, 하플루스: 함께

접는, 순진한, 명확한), 네 온 몸 또한 빛으로 가득하니라. 그러나 네 눈이 악하면,

네 몸 역시 어두움으로 가득하니라.

눅1135. 그러므로 네 안에 있는 빛이 어두움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눅1136. 그러므로 만약 네 온 몸이 아무런 어두운 부분이 없이, 빛으로 가득하면,

촛불의 환한 비춤이 네게 빛을 주는 때와 같이, 온 몸이 빛으로 가득하게 되느니라.

성경은 눈은 우리 몸의 등불이라고 말한다.

"눈"은 마음, 양심 혹은 이성을 비유적으로 나타낸 말이다.

분명히 눈은 우리의 행동과 결정에 의해 밝아지거나 어두워지게 된다.

눈의 청결 정도에 따라 빛과 어둠을 볼 수 있는 양이 결정된다.

오늘날 우리들은 영적 진리의 중요성을 완전히 깨달아야만 한다.

우리 눈과 양심이 맑고 영적으로 건강하다면,

우리 온몸은 빛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 몸은 어둠으로 가득차게 될 것이다.

히1022. 악한 양심으로부터 피뿌려진 우리의 마음들과, 순수한(불순물 없는)

물로 씻겨진 우리의 몸들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충만한 확신 가운데서

참된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가자.

우리 양심에 간사함이 없다면, 주님은 우리 길을 인도하시며

우리 발을 견고케 하시는 등불이 되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다.

우리의 양심과 마음이 밝아질 때 우리는 "좁고 곧은 길"을 걸어갈 수 있고,

말씀의 물로 씻겨진다.

**빛 : 어둠**

요0319. 그리고 이것이 그 판결(크리씨스: 결정, 결심, 재판소, 공의, 정죄, 단죄,

비난, 재판)이니 곧, 빛이 세상 속으로 들어왔고, 사람들은 빛보다 오히려 어두움을

사랑하니라, 이는 그들 행실들이 악하였음이라.

요0320. 이는 악을 행하는 낱낱의 자가 빛을 미워하며, 빛에로 오지도 않음이라.

그의 행실들이 꾸지람을 받지 않을까 함이라.

요0321. 그러나 진리(알레데이아: 진리,참되다,진실성,사실)를 행하는 자는 빛에로

오나니, 그러면 그의 행실들이 하나님 안에서 행해진 것으로, 그것들이 분명하게

나타내질 것이니라.

주님의 빛을 막으며, 우리 눈 속에 어둠을 가져오며 우리 양심을 더럽히는 것이

무엇인가?

두려움, 거절, 비방, 분노와 용서하지 못함이

우리에게 오는 빛을 차단하는 가장 큰 장애물들이다.

교회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달리

하나님께 합당한 회개의 시기로 들어가고 있다.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영안과 양심을 정결케 하는 과정을 밟게 되고,

더 나아가 큰 어둠을 밝힐 하나님의 빛과 연합할 수 있게 된다.

그 첫 단계는 우리의 결점과 실패, 죄악들을

회개를 통해 빛 가운데로 가져오는 것이다.

그래야만 그것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고 우리의 마음은 주님의 거룩한

풀어놓음을 위해 준비되게 된다.

진리를 좇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주님은 어둠보다 빛을 사랑할 자들을 찾고 계신다.

우리가 진실로 진리를 원하다면, 우리는 기꺼이 성령님이 우리 속의 부패의

씨앗들을 제거하도록 허락하면서, 우리의 행동이 드러나는 빛 가운데로 나갈 것이다.

처음에는 고통스럽더라도 그 결과는 풍성한 의의 열매를 맺을 것이며,

우리의 구주와 친밀한 교제를 하게 될 것이다.

손해보다 유익이 훨씬 많다.

하나님이 어둠에서 빛을 분리하시는 창세기 1장을 되돌아 가보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빛은 보기 좋으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둠과 빛을 분리하셨다.(창 1:4)

창0104. 그리고 하나님이 그 빛을 보시니, 그것이 훌륭하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어둠에서 그 빛을 나누시니라.

주님이 우리 속의 어둠으로부터 빛을 분리해내기를 매우 원하심으로

이러한 영적 과정은 계속된다.

요0104. 그분 안에 생명(조에:생명,생)이 있었으니(미완료형),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더라.

요0105. 그리고 그 빛이 어두움 중에서 비추고 있느니라, 그리고 어두움은 그것을

납득하지(카탈람바노:힘을 다해 취하다, 잡다, 소유하다, 달성하다, 다가오다,

이해하다, 발견하다, 얻다, 지각하다, 만회하다) 못하니라.

우리가 우리의 영안을 어둠가운데 방치한다면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이 아닌 사탄의

영향력 아래 거주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양심을 정결케 하여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에 우리를 통해서

자유롭게 흐르도록 해야만 한다.

행2616. 그러나 일어나서, 네 발을 딛고 서라, 이는 내가 네게 이 목적으로

나타났음이니 곧, 그들의 눈들을 열기 위해, 또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능으로부터 하나님께로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 지금 내가 너를 보내는

백성으로부터와 이방인들로부터 너를 구해내서(중간태),

네가 본 이것들과, 또 내가 네게 나타낼 그러한 것들 양쪽의 대행자(종)와

증인(목격자)으로 너를 만드는 것이라.

**천둥과 번개**

시1813. 여호와께서 하늘들에서 굉음을 또한 내셨으며, 지극히 높으신 분이 그분의

목소리를 내셨으니, 우박들과 숯불들이라.

시1814.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그분의 화살들을 쏘셔서 그들을 흩으셨으며,

그분께서 번개들을 쏘셔서, 그들을 패주시키셨느니라.

시1815. 오 여호와여, 그때에 당신의 꾸지람에, 당신 콧구멍의 호흡의 바람에

물들의 바닥들이 보여졌으며, 이 세상의 기초들이 드러내졌나이다.

하늘의 천둥은 교회를 통해 지상에 울리는 하나님의 음성 혹은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낸다. 번개는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한다.

주님은 주님의 말씀을 드러낼 "이기는 자들"을 준비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 세대에 엄청난 천둥과 번개를 풀어놓을 준비를 하고 계신다.

"이기는 자들"은 더이상 부패한 양심으로 살지 않고,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된

눈을 가진, 주님의 임재를 위해 거룩하게 준비된 자들이다.

그들로 인해 그들 각 개인뿐 아니라 전 교회에 엄청난 빛이 임할 것이다.

시1820. 여호와께서 나의 법적 깨끗함을 따라 내게 답례하셨으며, 내 손들의

청결함을 따라 그분께서 내게 보답하셨느니라.

시1821. 이는 내가 여호와의 길들을 지켜 왔으며, 내 하나님으로부터 사악하게

떠나지 않았음이라.

시1822. 이는 그분의 모든 규범들이 내 앞에 있었고, 내가 그분의 법령들을

내게로부터 치우지 않았음이라.

시1823. 내가 그분 앞에서 또한 똑바랐으며, 나의 무도한 불법(아본: 사악함, 악,

과오, 범법, 해, 징계, 죄, 이탈)으로부터 내가 나 자신을 지켰느니라.

시1824.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의 법적 깨끗함을 따라, 그분의 시야에 있는

내 손들의 청결함을 따라 내게 보답하셨느니라.

이 세상의 더러움과 부패, 육적 본성으로부터 우리가 정결하게 될 때

의는 우리안에 세워진다.

성경은 말하기를,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린다고 한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막힘없는 빛의 흐름을 제공할뿐 아니라 우리 양심의

부패로부터의 정결함을 위한 길을 제시해 준다.

주님의 법은 크리스찬들을 위해 만들어진 행동원리로서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에 의해 우리 가운데 영원히 존재하게 된다.

주님의 모든 행동 원리들은 사랑이란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다.(롬 13:10)

죄는 양심의 부패이다.

우리가 죄에 빠져 살면 살수록 우리의 빛은 더 왜곡되고

우리로부터 그 죄를 더 제거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우리는 그 죄를 인식하기가 더 어렵게 되고,

그 죄는 아주 쉽게 우리를 사로잡게 된다.

죄는 우리 길을 비추는 하나님의 빛을 왜곡시키는 필터 역할을 한다.

우리가 걸어 갈려는 길은 좁고 곧은 길이며 이 길에 남아 있으려면.

완전한 조명이 필요하다.

이 빛을 흩트리며 막는 어떠한 죄라도 우리를 탈선시키고

막다른 길로 인도하고 곤경가운데 헤매이다 결국 죽게 만든다

성경의 가장 위대한 약속들은 성숙하고 의로운 자들을 위한 것이다.

우리가 성경에 예언된 의로운 세대가 되려면,

우리가 기만과 속임수를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 길을 완전히 밝혀주시도록 해야만 한다.

오늘날의 영적 상황들을 볼때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빛과 말세에 스며들어 올 가짜 빛을

분별할 수 있는 엄청난 분별력이 필요하다.

**빛을 막는 장애물들로부터 자유하기**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용서하는

마음을 품어야만 한다.

우리의 사랑을 측정해 볼 수 있는 가장 큰 시험가운데 하나는,

우리에게 행해진 죄를 용서해야 할 때,

그리고 우리를 공격하고 상처준 자들을 포용해야만 할 때이다.

깊이 뿌리내린 분노의식은 하나님의 빛을 왜곡시키는 또다른 큰 장애물이다.

우리는 우리에게 해를 끼친 자들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의 공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기꺼이

포용해야만 한다.

단지 용서하는 것만으로는 항상 충분하지 않다.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죄를 범한 자들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포용해야만 한다.

우리가 삶 속에서 발생한 상황이나 행동들에 대해서

우리 마음속에 분노를 품은 채로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길을 왜곡시키는 무기를 적에게 제공하게 될 것이다.

성경은 말하기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하는 생각이라

고 (렘 29:11) 선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계획들 가운데 있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예비하신 길을 따라 행해야 한다.

주님의 길과 방법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속성들을 세우시도록 허락할 때 명백히 드러난다.

시험, 실패, 그리고 어려운 상황들은 하나님의 인격을 세우기 위해서 자주 허락된다.

또한 주님의 계획들을 성취하기 위한 길을 예비한다.

주님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의 수치를 싫어하셨을지라도 십자가를 껴안으셨다.

우리도 이와같이 주님을 본 받아야 한다.

우리가 과거의 실패, 곤경과 광야의 시련의 수치를 싫어할지라도,

우리는 그로 인한 유익을 포용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우리를 성숙케 하여 이 세대를 높은 소명을 위해

준비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은 십자가의 수치를 싫어하셨지만

그 수치가 가져다 줄 유익을 위해 십자가를 향해 기꺼이 나가셨다.

흠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에게 가장 치욕스런 사형수단인

십자가의 수치를 견뎌내셨다.

우리도 담대한 확신가운데 주님을 모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수치를 뛰어넘을 수 있어야 한다.

죄의식(죄책감)은 위로부터 오는 빛을 차단하는 또다른 장애물이다.

이기는 자는, 통회하는 회개를 통해

죄를 십자가로 들고나가면, 죄는 더 이상 하늘에 기록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신실한 회개를 한 후 하나님의 자비를 기꺼이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불법에 대한 죄의식은

하나님의 거룩한 빛의 흐름과

선한 양심이 제 역할을 하는데 방해만 할 것이다.

주님이 용서하셨는데 그 용서하신 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죄의식을 갖는 것은 죄가 된다.

상상할 수 없는 댓가가 우리의 죄와 불법, 악을 위해서 지불되었다.

죄의식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은 구원자의 엄청난 희생을 모독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주님은 한 인간에게 엄청난 은혜를 보여주셨다.

교회사의 가장 큰 핍박자중 한 사람이 가장 큰 사도가 되었다.

그런 용서함이 바울에게 있었다면 또한 우리에게도 당연히 있는 것이다.

우리 눈이나 양심이 청결할 때,

우리는 그 청결 정도에 따라 천국의 계시를 보게 될 것이다.

더러운 양심은 천국의 환상과 지상을 향한 주님의 순결한 목적을

왜곡시키는 역할을 한다.

우리 마음이 청결하면 주님은 자신의 청결한 모습을 보여주실 것이다.

우리 마음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인격과 계획들을

왜곡되게 받아들일 것이다.

시1825. 인자한(하씨드:인자한,경건한,선한,자비로운,성도) 자에게 당신께서는

인자하신 당신 자신을 보여주실 것이며, 똑바른 자에게 당신께서는 똑바른 당신

자신을 보여주실 것이니이다.

시1826. 순전한 자에게는 당신께서 순전하신 당신 자신을 보여주실 것이며,

완고한(성질이 뒤틀린) 자에게는 당신께서 완고하신 당신 자신을 보여주실

것이니이다.

주님은 우리 손의 깨끗함을 따라 보상을 하신다.

성경은 우리가 주의 산에 오를려면 깨끗한 손과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시각을 왜곡시키고 더럽히는 우리의 길을 떠나

주님의 길을 받아들여야 한다.

주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의 모든 죄와 악을 감당하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죄의식, 분노, 자기비하를 고집하는 것은 빛의 왜곡만 가져올 뿐이다.

우리가 빛의 자녀들이 될 때

성경에 기록된 선하고 값진 약속들은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선한 눈을 가진 자의 특징**

잇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두목이

이백명이니 저희는 그 모든 형제를 관할하는 자며 (역하 12:32)

깨달음은 우리가 깨끗한 양심을 가질 때 풀려난다.

위험한 시기가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으며 큰 어둠이 곧 지상을 덮을 것이다.

그러나 경건하고 거룩한 이기는 자들에게는

이 시대가 엄청난 빛과 조명의 시기가 될 것이다.

그 시대의 계시들이 이렇게 준비된 자들에게 전이될 것이다.

마0622. 몸의 빛은 눈이니라, 그러므로 만약 네 눈이 정직하면(성실하면, 하플루스:

함께 접는,순진한,명확한), 네 온 몸이 빛으로 가득차느니라.

마0623. 그러나 만약 네 눈이 악하면, 네 온 몸이 어두움으로 가득 하니라,

그렇다면 만약 네 안에 있는 빛이 어둡게 되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대단하겠느냐!

마0624. 아무도 두 주인들을 섬길 수 없느니라, 이는 그가 이 사람을 미워하며

저 사람을 사랑하거나, 아니면 그가 이 사람에게는 붙어있고 저 사람을 멸시할

것임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마몬(맘모나스:안락,신성화된,부,허욕,돈,재물)을 섬길 수

없느니라

성경은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명백히 말하고 있다.

우리가 담대히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려면,

반드시 다른 신을 주님 앞에 놓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재정적인 문제가 우리 마음의 첫자리를 차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문제이다.

사람이 주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을 저버리지 않는다면,

재정적인 부를 소유하였다고 해서 잘못된 것은 아니다.

실제로, 이 세대의 많은 사람들이 왕국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엄청난 자원들을

가지고 일어서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한가지 걱정스런 점은

이 자원들이 거대한 걸림돌이 되어

많은 사람들을 더럽히며 세상과 세상 일을 사랑하게 한다는 것이다.

잠2209. 아낌없이 베푸는 눈을 가지고 있는 그는 축복 받느니라(바라크: 무릎 꿇다,

송축하다, 사람을 은혜로 복주다, 축복하다,축하하다,찬양하다,경배하다,저주하다),

이는 그가 가난한 자들에게 자기의 빵에서 줌이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념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제 칠년 면제년이 가까왔다

하고 네 궁핍한 형제에게 악한 눈을 들고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네가 죄를 얻을 것이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인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범사와 네 손으로 하는 바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 네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지니라